

박물관 전시의상의 현황과 관람자의 요구 -서울시내 박물관 중심-

장 인 우 · 성 영 애* · 김 찬 주

인천대학교 생활과학부 의생활전공, *인천대학교 생활과학부 생활자원관리전공

Current Status of the Display of Traditional Costumes in Museums and Visitors Needs

Chang, In-Woo · Sung, Young-Ae* · Kim, Chan-Jo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University of Incheon

*Dep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University of Incheon

(2001. 5. 14 접수)

Abstract

The first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play of traditional costumes by observing museums in Seoul ; the National Folk Museum and the Royal Museum. The second objective wa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and need of their visitors by a survey method. To collect the data, several observations were made by the author,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the students whose major is related to clothing and a survey using questionnaires was conducted to the consumers who visited the museum in the fall of 2000. To analyze the data,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were utilize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Two museums were differentiated in the contents of display, but some of costumes displayed were overlapped. In both museums, there were few visual explanations. The visitors were highly interested in the costume display in the museum. The most dissatisfactory area was the way and contents of costume explanation. The preferred contents, method, explanation and environment of the display of traditional costumes were partially different according to visitors' characteristics. The reforming of the display of costumes reflecting the results will increase the visitors' satisfaction and therefore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museums.

Key words: contents of display, methods of display, Visual Explanations, Enviroment of the display, Visitors; 전시내용, 전시방법, 시각설명, 전시환경, 관람자

I. 서 언

박물관은 각 민족 혹은 지역의 생활과 예술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타민족 혹은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박물관을 찾는다. 또한 동일 민족

안에서도 과거의 문화 혹은 다른 지역의 문화를 박물관을 통하여 이해한다. 이처럼 박물관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생활과 정신을 담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획일화되고 혼돈의 세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현대인에게 하나의 인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박물관을 찾

는 관람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박물관은 더 이상 문화의 부산물뿐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경제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의 관람자는 물론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해외여행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박물관의 전시행정 및 기획에서의 변화는 요구된다고 본다. 이미 몇몇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행함으로써 이러한 시류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인 서울의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국립민속박물관·궁중유물전시관과 앞으로 2002년에 개관하는 서울시립박물관이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의 박물관 위치는 박물관 관람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박물관을 개발한다면 많은 관람자에게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상품으로서 의의를 높게 지니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박물관에 관한 연구는 박물관 역할변화에 따른 현대 박물관 건축설계(서상우, 1988) 박물관의 공간(정용재, 1994) 그리고 박물관 전시 계획(김수운, 1987) 등 박물관의 공간과 배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위치한 국·공립박물관에 전시된 의상을 통하여 박물관현황과 이에 대한 박물관 관람자의 의견을 전시내용·전시방법·전시환경의 3측면으로 살펴 관람자(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전시행정을 제안함으로써 박물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박물관의 역할과 전시대상의 변화

오늘날 박물관(museum)은 그리스어인 museion에서 비롯되었다. 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문예·미술·철학의 여신 muse에게 바치는 신전을 뜻한다. 이러한 박물관은 기원전 3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궁전에서 도시미관용(美觀用)건축물이나 소수 학자의 전용의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박물관이 일반 대중의 지식을 개발하는 시민의 교육기관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1차

대전 이후에는 박물관의 전성기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그 수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이난영, 1972), 그 결과 1946년 UN의 전문기관인 UNESCO의 한 기구로 국제박물관회의(ICON/Int'l Council of the Museums)가 발족되었다. 여기서 박물관이란 사회와 그 사회발전에 교육과 오락의 봉사들을 위하여 인류와 환경에 대한 물질적 증거를 수집하여 연구·전시하는 건축물(항구적 기관)이라 하였다(문.체.부, 1997)

시대에 따라 박물관의 대상 변화는 일반대중의 흥미와 관심의 폭을 넓혀 관람자를 하나의 소비자로서 박물관이 상품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은 수집대상을 미술과 예술중심의 역사·미술·과학·기술의 비생물체에서 식물원·동물원·수족관 등의 생물체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표본으로, 또 과거에 한정된 내용에서 미래를 위한 것으로 확대시켰다(이난영, 1972). 복식유물 역시 현대박물관에 이르러 비로소 수집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경우 복식류를 과학·산업·기술의 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문.체.부, 1997)

또 박물관의 교육중심으로의 기능변화는 단순 수집품의 나열이 아닌 설명 의도의 전시로 바뀌게 하였다. D. Allan은 박물관 전시기능에 대해서 관람자가 박물관에 찾아와 전시실을 보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또 다시 와서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 하여 오늘날 박물관에 있어서 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박물관전시는 예술적 색채감과 미적 감상을 위한 배열 그리고 조명의 효과뿐 아니라 해설과 자료의 논리적 배치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박물관의 사회적 교육역할은 점점 강조되어 대학박물관에서는 전시보다는 연구에 더욱 비중을 두었으며, 또 새 박물관 운동을 전개시켰다(서상우, 1988). 이러한 연구는 전시에서 질적인 설명이 중시됨을 의미한다.

2. 박물관의 전시

박물관의 전시는 수집품의 효율적인 전시뿐 아니라 자료의 이해를 위하여 전시환경·공간배치·전시위치·전시법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이외 전시

물의 입체적 전시인 3차원 전시와 영상전시가 있다.

3차원전시란 전시물의 성격 혹은 전시물의 이해를 돕는 배치인 전시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3차원전시에는 유형(有形)물질의 전시로 진열장전시·전시대전시·전시판전시·디오라마 전시·파노라마(Panorama)전시·Island 전시·Hamonica 전시 등이 있다.

디오라마 전시는 디오라마란 그리스어의 Did(=Hrough)와 Orama(=Scene, Vion)의 복합어로 뒤에 그림이나 사진이 비추어진 것을 뜻한다. 즉 현장성에 충실하도록 표현하는 전시이다. 즉 한정공간 안에 입체적으로 전시하여 특정 관람창구로 관람하게 하는 방식이며, 비디오 혹은 슬라이드 오디오를 통하여 설명을 부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기념관의 재판행위 등을 드라마로 전시하는 예를 볼 수 있다. 파노라마(Panorama) 전시는 사건이나 인물의 맥락이 중요시 될 때 사용되는 표현수단으로 선형대로 연속적인 주제를 관계성 깊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벽면전시(벽화·사진·그래픽·영상)기법이다. Island 전시는 벽이나 천장과 같은 건축물의 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전시물이나 전시장치를 배치함으로써 전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Hamonica 전시는 전시평면이 하모니카의 흡입구처럼 동일한 공간이나 연속되어 배치되는 전시기법이다. 이외의 의상은 인간이 착용함으로써 그 모습을 나타내는 특성에 따라 전시에 있어서도 인물대신 인간의, 모형물인 마네킨전시법과 단순의상의 평면전시가 있다.

영상전시는 전시물의 내용전달을 위한 것으로 현물을 직접 전시할 수 없는 경우나 또는 오브제전시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영상전시는 크게 정지영상전시(Slide Projection)와 동적영상전시(Motion Picture Projection)가 있다. 정지영상전시에는 슬라이드 프로젝터와 프론트 스크린 혹은 리어 스크린을 사용하며, 멀티비전을 사용하는 정지다원영상전시(Multy-Screen-Slide Projection)도 있다. 동적영상전시(Motion Picture Projection)에는 비디오(Videotheque)를 이용한 동적단일영상전시와 멀티스크린이나 씨클비전(Circle Vision)을 이용한 동적다원영상전시(Multy-Sceen-Motion Picture

Projection)가 있다(한정희, 1982). 이외에도 설명을 위한 인쇄물과 교체용 간판 그리고 기계를 이용한 audio guide와 telephone guide 그리고 hologram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교육적 기능이 중시된 박물관은 수집품의 확대는 물론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영상전시방법이 개발·확대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박물관의 의상전시 현황은 어떠한가?

박물관의 의상전시 현황은 서울시내 박물관 가운데 현재 국공립박물관이면서 의상전시가 활발히 진행되는 국립민속박물관과 궁중유물박물관을 통하여 알아보며, 자료의 수집은 복식전공연구자가 3월과 10월에 걸쳐 전시의상의 내용·전시방법·설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문제 2. 박물관의 의상전시에 대한 관람자의 의견은 무엇인가?

2.1 의상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박물관 의상전시
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2.2 일반 관람자의 박물관 의상전시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은 무엇인가? 박물관 의상전시
에 대한 의견은 관람자의 특성(성별·연령·직
업·박물관 관람빈도)에 따라 다른가?

연구문제 2.1을 위해서는 복식사전공 연구자가 의상전공 3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였으며, 면접결과는 질적인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면접대상학생들은 2000년 3월 3일부터 3월 15일 동안 박물관 관람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2를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서 만족도의 경우는 5점리커트 척도로 의견의 경우는 명목형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때 문항구성은 본 연구와 관련된 경험적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구자와 의상관련전공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모두 단일 문항으

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신뢰도는 구하지 않았다. 설문문의 내용은 의상전시에 대한 관심정도, 전통의상전시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인데, 전통의상의 설명방식, 전시방식, 전시내용, 전시관내의 환경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는 2000년 10월 15일(일)과 10월 22일(일)에 국립민속박물관과 궁중유물전시관의 전시를 관람하고 나온 일반관람자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252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7.5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는데, 빈도, 백분율, 평균, χ^2 검증방법이 이용되었다. 이때 5점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경우 ANOVA 분석도 가능하나 집단별 높고 낮음의 차이보다는 분포도에 일차적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χ^2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박물관의 전시의상 현황

국립민속박물관과 궁중유물박물관의 의상전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국립민속박물관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로 구분하여 과거 민속문화를 전시하였다. 전시는 대부분 벽면과 진열대를 이용한 진열장전시이며 <표 1>과 같다

제1전시실은 고구려의 죽막동 채사유적과 백제의 공예공방, 신라의 유리방울 소형모형(miniature doll)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전시하고 있어 고대의 의식과 일터에서의 생활복식을 볼 수 있다. 의상은 유(襦: 저고리)와 고(袴)를 착용하고 있으며, 모두 재현된 것이며, 여기서 삼국시대 복식 재료는 아직 무명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사실과 달리 대개 무명으로 제작된 상태이며, 의복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또 백제와 신라의 왕과 왕비의상은 기본복식과 포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외 금관과 장신구를 함께 착용하고 있으며, 의상은 모두 복원의상이며 마네킹으로 전시되어 있었으며, 비교적 넓은 공간에 전시되어 앞과 뒤 및 옆모습을 볼 수 있다. 의복에 대한

설명은 머리장식에서 신발까지의 개별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하고 있으나, 영문의 경우 의복의 고유명칭(po·chōgori...)을 언급하지 않고 서양식의 설명(coat, jacket...)만을 표기할 뿐 아니라 의복명칭이 그대로 나열되어 속에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명칭과 형태를 알 수 없다.

제2전시실은 우리민족의 의식주 풍속으로 주생활과 식생활 속에서 생활복식을 함께 볼 수 있으며 특히 의상을 착용한 마네킹을 통하여 당시 의복착장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외 의생활에 대한 수공예와 무명베짜기와 직물과 염색 및 침선(針線)에서는 각 제작기기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으며, 의생활문화의 관모(冠帽) 등의 장신구가 전시되어 의생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삼국시대부터 개화기까지의 복식일부를 시대순으로 - 삼국시대의 귀족복식, 고려시대의 귀부인복식과 관리의 평상복 그리고 관복, 조선시대의 제복(祭服)과 조복(朝服)·구군복(具軍服) 그리고 철릭(綴鞞)·장옷·당의(唐衣)·활옷(華衣), 개화기의 성인복과 아동복- 전시되어 있다. 전시의복 모두 재현품이다. 여기서 시대에 따른 대표적인 복식을 전시하고 있으나 관람자의 입장에서는 주제가 일관성이 없어 연관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설명부분에서 앞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서는 저고리 혹은 치마라는 단순명칭도 없이 단순히 '귀족복식'이라 언급된 반면 고려시대에서는 착용의복의 명칭이 언급되고 있어 동일 진열장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없다. 또한 조선시대의 복식에 있어서 조선시대라는 구분조차 없어 갑자기 의복의 착용시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조선시대의 전시복식은 제복과 조복 그리고 구군복으로 의복의 일습을 전시하는 반면 철릭과 당의는 갑자기 의복만을 언급하여 어떤 의복을 언급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활옷의 경우는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개화기의 성인복·아동복은 단순설명만 하고 있다.

제3전시실은 한국의 민속문화가 주제별로 - 들복·아이놀이·서당·과거시험·회갑·국청·상청(喪廳)·한약방·판소리·무고·탈춤·주막·역참·초례청·관례(성인식) - 전시되었다. 의상은

<표 1> 국립민속박물관과 궁중유물전시관의 전시의상

박물관 전시실	국립민속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제3전시실	제5전시실	제8전시실
주제	고대사회한국사회	의식주생활	민속	왕: 면복일습	왕비복과 장신구	왕실복식
내용	생활풍속	삼국 귀족	돌복	신하: 제복일습	왕비: 당의·저고리·치마	진왕복식:자적용포
고 구 려	죽막동계사유적 : 유·고	고려 귀부인복	아이놀이		왕세자비: 당의·저고리·치마	앵왕:홍룡포
	왕복·왕비복: 포·유·치마·고	조선	제복	서당	상궁복식: 당의·저고리·치마	왕비 : 적의와 대례복식
왕복·왕비복: 포·유·치마·고	조복		과거시험	전투복식:비사문갑옷·쇠갑옷·두정갑옷	노리개	문·무관리:관복
신 라	신라유리방:유·고	구군복	관례(계례·관례)			덕혜옹주:당의
		철릭	초례청			진왕: 사규삼
		장옷	회갑			대홍원삼
		당의	상청			
		활옷	탈춤			
		개	성인복	판소리		
		화	아동복	굿칭		
		기	성인복	무고		
		개	장신구	한약방		
		화	직물과 염색	주막		
		기	침선구	역참		
			신발류			
			관모류			
			칠기발달사			
			무명베짜기			

마네킹에 일습으로 착장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 민속생활복식을 관찰할 수 있다. 각 민속 생활에 각 민속이 중심으로 의상에 대한 설명은 거의 언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2) 궁중유물박물관의 전시

궁중유물박물관은 1·2층 11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의상은 제3·5·8전시실에서만 전시되고 있으며 종류는 <표 1>과 같다.

전시내용은 제3·5·8전시실 가운데 제3·5전시실은 궁중의례중심이며, 의상은 일부로 전시되고, 제8전시실은 의상전용전시실이다. 전체 전시의복은 약 30여점이다. 전시의상의 설명은 한글·한문·영어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고 고종된 복식은 「복원」이라고 명시되었다.

제3전시실은 궁중의 대례식 상황을 설명하는 전시실이며, 현대의 재현된 대례식 사진과 함께 왕의 면복과 면류관, 신하들의 제관과 제복일습이 마네킹에 착장된 전시이다. 설명에 있어서는 제복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실제로 왕의 제복과 신하의 제복을 구별하지 않아 기초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나 외국인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 의복 일습이 마네킹에 전시되어 있어 착장 상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설명에서 의복과 장신구의 개별명칭은 있으나 설명이 각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제5전시실은 왕비와 왕세자비 그리고 상궁의 치마·저고리·당의의 일상복식(常服)과 여인들의 장신구가 전시되고 각 의복은 마네킹전시로 착장 상태와 머리장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의상은 복원품

이다. 벽면 진열장에 흉배(胸背)와 노리개·주머니·수화관(繡花冠)·골무가 나열 전시되어 있으며, 설명은 단순명칭이고 모두 복제품이다.

제6전시실에 태조(太祖)·영조(英祖)·고종(高宗)의 어진 모사품이 있어 왕의 상복(常服)을 볼 수 있다.

제8전시실은 의상만 전시된 전시관이다. 전시실 4 벽에 따라 의상을 달리하여 전시하고 있다. 입구의 오른쪽에서 첫 벽면에는 거북무늬 비사문 갑옷·쇠갑옷·두정갑옷의 복제품이 마네킹에 전시되어 있으나 두식(頭飾)과 기타 장신품은 전시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자적용포와 영왕의 홍룡포(紅龍袍) 그리고 왕비의 적의(翟衣)와 대례복식(大禮服飾)이 마네킹 전시되어 있다. 그 다음은 덕혜옹주(德惠翁主)의 당의(唐衣)와 진왕의 사구삼(四揆衫) 복식이 평면으로 전시되어 있다. 이외 대홍원삼(大紅圓衫)이 평면으로, 문무관리의 관복(冠服)이 마네킹전시로 진열되었으며, 모두 복제품이다. 전시실 가운데에는 노리개와 장신구가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두 박물관의 전시내용은 <표 1>과 같이 차별되어 있으나, 민속박물관 전시의상에 궁중유물전시관의 일부의상이 중복 전시되어 있었다. 설명은 궁중유물전시관이 민속박물관보다 명칭과 설명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으나 두 전시관 모두 시각적 설명은 볼 수 없었다. 전시의상은 두 박물관 모두 대부분 진품이 아니었으나 민속박물관은 소장 진품과 관계없이 특정의복 혹은 특정 시기의 의복을 재현한 것인 반면 궁중유물전시관의 경우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진품의 복제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전시에 있어서 두 박물관 모두 주제에 따라 전시하고 있으며 의상전용 전시관과 함께 타 주제 전시실에도 의상을 볼 수 있었다. 전시방법에 있어서 궁중유물전시관은 단순 전시인 반면 민속박물관은 상황에 따른 스토리전개 전시로 이루어졌다.

2. 서울시대 박물관의 의상전시에 대한 의견

1) 의상관련전공 학생들의 의견

면접대상은 의상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이들은 과거의 복식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아직 복식사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 즉 복식사에 대한 지식이 일

반인과 유사한 학생들이다. 이들의 박물관의 의상전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에 박힌 설명에서 전문화된 설명요구

설명분야에 대한 의견은 의복의 명칭 혹은 종류를 나타내는 단순설명이 언제 누가 착용하는가, 혹은 착용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겉옷 속에 가려진 속옷(받침옷)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등의 구체적인 전문화된 설명에 대한 요구이다. 또한 이러한 설명은 비디오·홀로그램·사진·도면의 시각적 자료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였다.

(2) 전시내용의 특성화, 주제화 그리고 국제화

국립민속박물관과 궁중유물박물관의 전시유물의 내용이 보다 특성화되기를 요구하였다. 주제화 된 전시내용 즉 특정 의복의 변천과정이나 일습을 갖추어 입어야 하는 의례복의 경우 겉옷 속의 속옷의 착용과정 전시, 서민복(일상복)의 전시를 요구하였다. 특히 지역별의 혼례복 전시와 같은 특정의복의 횡적 분포 전시 혹은 조선시대에 한정된 전시 보다는 전시대의 종적인 폭넓은 전시, 아울러 한국복식과 함께 비교 이해할 수 있는 주변국가의 의복전시 등으로 보다 전문화된 전시를 요구하였다.

(3) 상황전개 및 오락성이 부가된 전시

전시형식에 있어서는 마네킹에 의한 정면전시에서 특정 상황에 따른 인물들의 스토리전개의 입체적인 전시를 요구하였다. 이 때 사용하는 마네킹의 모습을 외국적인 모습이 아닌 한국적 인상을 지닌 마네킹을 사용함으로써 당시 모습을 연상시키길 바라고 있었다. 단순 과거 의복의 관람뿐 아니라 재미로서 오락성을 부가시키길 바라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의상을 체험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2) 일반관람자의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관람자로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의 53.6%는 여성이었고, 36.1%가 20대, 34.1%가 10대, 나머지 29.7%가 30대 이상으로서 고른 분포를 보여주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학생이 41.4%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 및 사업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N=252)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성별	남	117	(46.4)	의상관련직종 종사여부	예	14	(5.6)
	녀	135	(53.6)		아니오	238	(94.4)
연령	10대	86	(34.1)	박물관관람빈도	1달에 1번 이상	24	(9.5)
	20대	91	(36.1)		2~3달에 1번 정도	30	(11.9)
	30대	51	(20.2)		6개월에 1번 정도	55	(21.8)
	40대 이상	24	(9.5)		1년에 1번 정도	67	(26.6)
직업	직장인/사업가	80	(31.9)	1년에 1번 미만	54	(21.4)	
	학생	104	(41.4)	이번이 처음	20	(7.9)	
	기타	67	(26.7)				

가가 31.9%였다. 조사대상자가 의상관련 직종이나 학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5.6%가 의상관련직종/학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박물관 관람빈도는 1년에 1번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개월에 1번 정도 또는 1년에 1번 미만이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었다.

(2) 의상전시에 대한 관심정도

① 의상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정도 : 전시분야를 7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에 따라 어느 정도 흥미를 느끼는지 살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의상, 그림, 도자기, 금속공예, 조각, 가구 및 기타의 순서로 관심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편이기는 하나 의상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의상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관람자의 비율이 2/3를 넘는다.

② 관람자의 특성에 따른 의상전시에 대한 관심정도 : 관람자 특성에 따른 의상에 대한 관심정도는 <표 4>와 같다. 관람자의 성별·연령에 따라 의상

에 대한 관심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의상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10대나 20대의 경우 의상에 대한 흥미가 30대 이상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10대의 경우 흥미를 보이는 비율도 높은 한편 흥미를 보이지 않은 비율도 20대나 30대 이상보다도 높은 것으로 극단적인 면은 볼 수 있다. 반면 직업이나 박물관관람빈도에 따른 의상에 대한 관심도는 차이를 볼 수 없다.

(3) 전통의상 전시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

① 전반적인 전통의상 전시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 : 전통의상 전시에 대한 부분별 만족도(전시방법, 전시내용, 설명, 박물관내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표 5>와 같이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다. 설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있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설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의상에 대한 상식이 없는 비전공자에서도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3〉 전시분야별 관심정도(N(%))

순위	항목	흥미롭지 않다	보통이다	흥미롭다	평균*
1	의상	20(8.3)	56(23.1)	166(68.6)	3.92
2	그림	18(7.5)	73(30.3)	150(62.2)	3.80
3	도자기	20(8.3)	77(31.8)	145(59.9)	3.75
4	금속공예	17(7.2)	83(35.0)	137(57.8)	3.72
5	조각	26(10.7)	80(33.1)	136(56.2)	3.70
6	가구	31(12.9)	82(34.0)	128(53.1)	3.61
7	기타	20(23.8)	39(46.4)	25(29.8)	3.12

*5점만점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의 평균치. 5점은 아주 흥미로움을, 1점은 전혀 흥미롭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4〉 관람자특성에 따른 의상전시에 대한 관심정도(%)

변인	구분	흥미롭지 않다	보통이다	흥미롭다	χ^2
성별	남	13.5	31.5	55.0	18.64***
	녀	3.8	16.0	80.2	
연령	10대	14.1	16.5	69.4	9.94*
	20대	2.3	26.7	70.9	
	30대 이상	8.5	26.8	64.8	
직업	직장인/사업가	6.8	27.0	66.2	6.06
	학생	12.7	21.6	65.7	
	기타	3.1	21.5	75.4	
박물관 관람빈도	2-3달에 1번이상	5.9	19.6	74.5	3.46
	1년에 1-2번	7.6	21.2	71.2	
	1년에 1번 미만	11.3	28.2	60.6	

*p<.05 **p<.01 ***p<.001

〈표 5〉 전통의상 전시에 대한 만족도(N(%))

순위	항목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평균 *
1	전시방법	25(10.3)	98(40.5)	119(49.2)	3.46
2	전시내용	27(11.1)	106(43.4)	111(45.5)	3.42
3	설명(내용과 방식)	22 (9.0)	117(47.8)	106(43.3)	3.40
4	박물관내의 환경	37(15.1)	95(38.8)	113(46.1)	3.36

* 5점만점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의 평균치. 5점은 아주 만족스러움을, 1점은 매우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낸다.

〈표 6〉 전통의상 전시에 대한 의견(%)

내용	설명내용	설명방식	전시방식	전시내용	박물관내의 환경
		①비디오로 설명(40.3)	①이야기전개에 따라 전시(48.6)	①일상복이나 서민복(57.5)	①체험장 마련(57.4)
①구체적 설명필요(50.6)	②착용순서에 대한 설명 필요(46.5)	②착장순서대로 전시(36.7)	②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44.6)	②궁중복이나 예복(49.6)	②휴식공간 마련(47.8)
③그림설명 필요(43.7)	④속옷에 대한 설명 필요(31.8)	③그림설명(34.7)	③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43.0)	③박물관에 따라 특화된 내용(40.9)	③전통적인 분위기 조성(46.6)
		④사진자료(29.8)	④한국인 인상의 마케팅으로 전시(27.5)	④진품(27.4)	④전통음향효과(32.7)
		⑤홀로그램(26.6)			
		⑥문자설명(21.8)			

전통의상 전시에 대한 의견은 <표 6>과 같았는데, 설명내용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설명이 보다 구체적이기를 바라는 비율이 50.6%로 가장 많았다. 전통의상의 착용순서에 대한 설명 추가를 바라는 비율도 46.5%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설명이 추가되기를 바라는 비율도 43.7%, 속옷에 대한 설명의 추가를 바라는 비율은 31.8%로 나타났다. 두 박물관 모두 의상에 있어서 도면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

면 건축·도자기·고고학분야에서는 도면 설명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설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관람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관람자 대다수의 의견임을 알 수 있다.

전통의상을 전시할 때의 설명방식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설명방식은 비디오 설명을 조사대상자의 40.3%가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의복의 착용순서대로 설명하는

방법,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사진자료나 홀로그램이 적합하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였고 문자로 설명하는 방식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시방식은 "이야기 전개에 따라 전시하는 방식"이었으나 과반수를 넘지는 않는다(48.6%).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방식"과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도 "한국인 인상의 마네킹으로 전시하는 방식"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전통의상의 전시내용에 대한 의견은 일상복이나 서민복에 대한 선호도가 57.5%로 가장 높았고, 궁중복이나 예복에 대한 선호도도 49.6%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에 따라 특화된 내용의 전시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40.9%를 차지하였으나 진품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 관람자는 27.4%정도였다.

박물관내의 환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박물관 내에 체험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이 57.4%로 가장 많았다. 휴식공간의 마련이라든가 전통분위기의 조성도 각각 47.8%, 46.6%의 관람자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음향효과를 내주었으면 하

는 의견도 32.7%를 차지하였다.

② 관람자 특성에 따른 전통의상 설명내용과 방법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 : 관람자 특성에 따른 전통의상 전시시의 설명에 대한 만족도는 <표 7>과 같이 다르게 나타났다. 10대 관람자의 경우는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보통, 불만족 하는 경우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20대나 30대 이상의 관람자 경우는 보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족, 불만족의 순서로 많았다. 특이한 점은 1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만족의 비율도 높았지만 불만족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전통의상 전시의 설명에 대한 만족도는 관람자의 성별이나 직업, 박물관관람빈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의상의 설명내용에 대한 구체적 의견도 관람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아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전통의상의 설명방식에 대한 의견은 관람자특성에 따른 차이가 일부 나타났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디오설명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관람자의 성별, 직업, 관람빈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1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비디오설명방식을 적합

<표 7> 관람자 특성에 따른 전통의상 전시에 대한 만족도(%)

변인	구분	설명			전시방식			전시내용			박물관내의환경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성별	남	18.8	43.2	45.9	13.6	40.0	46.4	17.0	43.8	39.3	23.0	38.1	38.9
	녀	7.5	51.5	41.0	7.6	40.9	51.5	6.1	43.2	50.8	8.3	39.4	52.3
	χ^2	1.96			2.47			8.27*			11.06**		
연령	10대	13.1	33.3	53.6	9.8	40.2	50.0	20.5	27.7	51.8	22.9	26.5	50.6
	20대	5.6	57.3	37.1	11.2	39.3	49.4	6.7	46.1	47.2	12.2	38.9	48.9
	30대 이상	8.3	52.8	38.9	9.9	42.3	47.9	5.6	58.3	36.1	9.7	52.8	37.5
	χ^2	11.64*			.23			20.85***			13.74**		
직업	직장인/사업가	6.5	61.0	32.5	11.5	37.2	51.3	9.0	47.4	43.6	16.7	39.7	43.6
	학생	9.9	38.6	51.5	9.1	42.4	48.5	16.0	30.0	54.0	19.8	27.7	52.5
	기타	10.6	47.0	42.4	10.9	42.2	46.9	6.2	60.0	33.8	6.2	55.4	38.5
	χ^2	9.10			.77			16.03**			14.65**		
박물관 관람빈도	2-3달에1번이상	13.5	51.9	34.6	11.5	26.9	61.5	7.7	42.3	50.0	15.4	44.2	40.4
	1년에 1-2번	7.5	43.3	49.2	8.5	40.2	51.3	10.2	42.4	47.5	17.8	34.7	47.5
	1년에 1번미만	8.5	50.7	40.8	12.7	49.3	38.0	15.3	44.4	40.3	11.0	39.7	49.3
	χ^2	4.21			8.04			2.56			2.86		

*p<.05 **p<.01 ***p<.001

〈표 8〉 전통의상 설명방식에 대한 의견(선호하는 비율 %)

변인	구분	문자설명	그림설명	비디오로 설명	홀로그램	착장순서 대로 전시	사진자료
	계	21.8	34.7	40.3	26.6	36.7	29.8
성별	남	21.1	33.3	42.1	36.0	36.8	28.1
	녀	22.4	35.8	38.8	18.7	36.6	31.3
	χ^2	.06	.17	.28	9.45**	.002	.32
연령	10대	25.3	45.8	50.6	37.3	30.1	30.1
	20대	19.8	33.0	31.9	25.3	42.9	28.6
	30대 이상	20.3	24.3	39.2	16.2	36.5	31.1
	χ^2	.92	8.14*	6.39*	9.08*	3.03	.13
직업	직장인/사업가	18.8	26.3	36.3	28.8	37.5	28.8
	학생	20.8	42.6	43.6	32.7	32.7	29.7
	기타	27.3	33.3	40.9	15.2	42.4	30.3
	χ^2	1.65	5.33	1.00	6.51*	1.65	.04
박물관 관람빈도	2~3달에 1번이상	20.4	27.8	35.2	29.6	40.7	37.0
	1년에 1~2번	21.8	36.1	45.4	28.6	34.5	26.9
	1년에 1번 미만	23.3	38.4	35.6	20.5	37.0	28.8
	χ^2	.16	1.67	2.53	1.86	.64	1.87

*p<.05 **p<.01 ***p<.001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설명방식의 경우도 역시 연령에 따라 선호도가 달리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림설명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홀로그램을 이용한 설명방식의 경우도 연령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았다. 홀로그램을 이용한 설명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성별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다른 직종종사자보다 더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시각적 설명을 선호하는 것은 앞으로의 관람자의 요구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관람자 특성에 따른 전통의상의 전시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 관람자 특성에 따른 전통의상의 전시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은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전시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관람자의 특성 —성별·연령·직업·박물관 관람빈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전통의상의 전시방식에 대한 의견도 관람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④ 관람자 특성에 따른 전통의상의 전시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 관람자의 특성에 따라 전통

의상의 전시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을 살펴보면 <표 7>과 <표 9>와 같다. 먼저 <표 7>에서 관람자 특성에 따른 전시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관람자의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관람자보다는 여성관람자의 경우 전시내용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전통의상의 전시내용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여성관람자는 6.1%였으나 남성관람자의 비율은 17.0%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10대의 경우 만족하는 관람자가 가장 많았고 보통, 불만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불만족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즉 10대의 경우는 만족하는 경우도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많았지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더 많았다. 20대의 경우는 역시 만족, 보통, 불만족의 순서대로 비중이 높았으나 보통과 만족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30대 이상 관람자의 경우는 보통인 경우가 58.3%로 가장 많았고 만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30대의 경우 불만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표 9>에서 관람자의 전시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 9〉 전통의상 전시내용에 대한 의견(선호하는 비율 %)

변인	구분	궁중복이나 예복	일상복이나 서민복	진품	박물관에 따라 특화된 내용
	계	49.6	57.5	27.4	40.9
성별	남	35.9	58.1	31.6	38.5
	녀	61.5	57.0	23.7	43.0
	χ^2	16.41***	.03	1.98	.53
연령	10대	50.0	54.7	36.0	40.7
	20대	49.5	62.6	22.0	42.9
	30대 이상	49.3	54.7	24.0	38.7
	χ^2	.01	1.52	5.02	.30
직업	직장인/사업가	46.3	60.0	12.5	38.8
	학생	47.1	54.8	34.6	43.3
	기타	56.7	58.2	34.3	40.3
	χ^2	1.97	.53	13.24**	.40
박물관 관람빈도	2-3달에 1번 이상	64.8	64.8	27.8	42.6
	1년에 1-2번	48.4	55.7	27.9	40.2
	1년에 1번 미만	39.2	54.1	25.7	41.9
	χ^2	8.27*	1.69	.12	.11

*p<.05 **p<.01 ***p<.001

살펴보면 관람자의 성별에 따라서 일상복이나 진품, 박물관에 따른 특화내용에 대한 선호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궁중복이나 예복에 대한 선호도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이(61.5%) 남성(35.9%)보다 궁중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관람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전시내용에 대한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관람자의 직업에 따라서는 진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학생이나 기타의 경우 직장인/사업가의 경우보다 진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박물관 관람빈도에 따라서는 다른 경우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궁중복이나 예복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관람빈도가 높을수록 궁중복이나 예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⑤ 관람자 특성에 따른 박물관내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 박물관내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은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전통의상을 전시하는 박물관내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관람자의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관람빈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자가 여성인 경우 남성인 경우보다 만족

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 연령이 10대인 경우의 만족 비율이 높았으나 불만족의 비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많은 편이었다. 30대 이상의 경우는 보통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관람자의 직업에 따라서는 학생, 직장인/사업가의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보통, 불만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의 경우는 보통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의 비율은 다른 집단보다 낮은 편이었다.

V. 결 언

오늘날 문화산업가운데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의상 전시의 현황과 관람자들의 의견을 통하여 문제점을 살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박물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고자 하였다.

의상전시는 관람자들의 가장 높은 관심대상 가운데 하나이었으며, 여기서 가장 큰불만은 설명분야였다. 역사계에 속하는 의상은 심미적 목적보다는 지식전달체계가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문.체.부, 1997)이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관심이 높은 분야인 의상전시의 설명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아울러 관람자들이 교육적 역할에 중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람자들은 의상전시물 설명에 있어서 언제·누가 착용하였는지, 의복을 착용하는 방법과 순서, 의복에 갖추어 입는 의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현 박물관의 설명은 명칭이나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 없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조사한 두 박물관 모두 설명에 있어서 명칭과 의복설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었다. 특히 영어 표기에 있어서는 의복에 따라 일관성 있는 표기와 영문설명의 시정은 국제화 박물관에 우선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조사한 두 박물관은 전시내용에 있어서 민속박물관은 민속중심으로 궁중유물박물관은 궁중복식중심으로 특화를 이루고 있으나 관람자들은 차별화의 이미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부 의복이 중복된 결과라 판단한다. 이에 박물관의 특화는 박물관간의 긴밀한 조정에 의하여 구성될 때 박물관 전체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관람자에 따라 관람자들은 직업과 의류관련에 관계없이 의상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전시내용에 있어서는 의상 전공학생의 경우 일상복에, 비 의상관련자들은 궁중복식에, 관람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외국복식과 현대의상전시, 이외 특정의복의 지역별 비교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전시방법은 두 박물관 모두 마네킹을 이용한 단순 진열장전시이다. 관람자들은 의상의 단순전시 외에 설명을 위한 영상전시의 추가를 원하였다. 영상전시는 비디오·도면·사진·문자의 순으로 시각적 자료에 의한 설명을 선호하였다. 관람자들은 진품에 대한 전시보다는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복합적 정보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상품으로써의 박물관의 의상전시

는 전시내용의 확대와 보다 교육적인 전시방법의 개발 등의 질적인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시대에 요구에 부응하는 박물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위하여 의상관련 전문인력의 충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박물관에서의 전시의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람자의 요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박물관 전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변수로 사례수의 부족으로 인해 직접 비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한 비교분석이 후속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람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관광객의 의견 또한 다를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또한 후속 연구과제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徐尙雨, 現代의 博物館 建築에 관한 計劃學的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계획 전공 박사학위논문, 1988.
2. 정용재, 여가문화활동의 장(場)으로서 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3. 김수운, 박물관전시의 계획과 그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4. 李蘭暎, 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1972.
5. 문화체육부, 21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1997.
6. 문화체육부, 박물관내 전시 및 수장 공간의 조명환경, 1996.
7. 韓貞姪, 博物館의 展示空間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環境大學院, 環境設計學科 室內裝飾設計專攻, 1986.
8. 최광남,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대원사, 1991.
9. 정현주, 박물관 전시계획과 디자인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0. 이영진·석대권, 박물관전시의 이해, 학문사, 2000.